

COVER STORY ' 도시선교 리더십 사역디렉터, 그웬 듀이(Gwendolyn Dewey)를 만나다



우리의 사고방식을 뒤흔들

틀을 바꿀 스위치를 켜라

🎧 인터뷰_김선일 (웨신대 교수), 정리_신효영 (월드뷰 편집인)

바키대학교(Bakke Graduate University),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의 신학'과 도시 사역 리더십을 전문으로 가르치며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시애틀에 소재한 대학이다. 바키대학교의 부총장이자 변혁적 리더십 사역디렉터로 전 세계를 두루 다니는 그웬 듀이(Gwendolyn Dewey)를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의 김선일 교수가 만났다.

김선일 교수님(이하 김): 대부분의 신자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일터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터는 영성이나 신학과는 별개로 취급받지 않나 싶습니다. 한국도 여전히 성숙의 이원적 사고방식으로 가득합니다. 르완다 인종 청소에 가담했던 사람들 중에는 자기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제자도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세계관의 문제일까요? 아마 전 세계를 다니다 보면 '세계관'이란 단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Gwendolyn Dewey(이하 Gwen): 목회자와 교회들은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삶을 조망하는 훈련을 받을 기회가 극히 드물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배운 성경적 원칙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도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성경적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한 필요성에 대한 절감이 우리 대학 일의 신학 과정을 만들어 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신학 강의를 들어도 일의 신학 세미나에 와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듣기 전까지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목회 현장에서 이러한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죠.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세계관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Mr. Don(이하 Don, Gwen의 남편):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23번 정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세계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세계관 아닐까요.



김: 바키(Bakke) 대학의 이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Don: 바키는 가족 이름(성)입니다. 바키 가족에는 형제 셋과 자매 한 명이 있는데, 제일 큰 형이 레이몬드 바키(Raymond Bakke, 이하 레이)라고 매우 유명한 전도자입니다. 레이는 시카고에서 탁월한 도시 선교 사역을 해 왔고, 기독교공동체개발협회(Christian Community Development Association)를 설립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레이는 도시로 파송 받은 ‘사도’라 불릴 정도로 큰 영향력을 끼쳤는데, 저는 감사하게도 그가 세운 국제 도시사역연맹(International Urban Associates:IUA)의 이사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IUA가 결국 지금의 바키대학교를 이루는 모체가 되었

습니다. IUA의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저는 레이의 동생인 데니스 바키(Dennis Bakke 이하 데니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데니스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이 사역의 후원자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지요. 우리 IUA에서는 세계 6개 지역에 센터를 설치해서, 그 지역의 신학교나 대학교의 교수들이 정부 관료나 비즈니스 종사자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세속사회에서 경험하는 신앙의 어려움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예를 들어, 무슬림들과 어떻게 지낼 것인가와 같은 문제들 말이예요. 또한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겪는 어려움의 배후에 어떠한 세력이나 힘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논의도 했습니다. 이 모임은 매우 생산적이었습니다. 센터는 유럽에 하나 아프리카에 하나, 그리고 중동에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중동의 센터는 특별히 중요했는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북미 지역에 하나, 남미에 하나, 정확히 홍콩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김: 그러한 센터와 프로그램들이 설립된 게 언제였습니까?

Don: 1987년에서 1988년경이었습니다. 제가 이사장으로 그 단체에 동참한 것은 1993년이었습니다. 제가 데니스를 만나게 된 배경에는 막내 동생인 로웰 바키(Lowell Bakke)가 우리가 다니던 교회의 목회자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로웰은 목회를 하느라 바빠서 형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형제들이 서로 만나서 협력 기관을 만들었고, 레이가 학장으로 제가 이사장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김: 그렇다면 ‘바키’대학으로 명칭이 변경되기 전에 대학의 성격은 어땠습니까?

Gwen: ‘바키’라는 이름을 갖기 전까지 우리 대학은 노스웨스트 목회대학원(North-Western Graduate School of Ministry)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와는 성격이 매우 달랐죠. 목회자 리더십이 강조되었고, 24명의 강사진은 목회자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대학은 1991년에, 당시 미국 북서부에 목회자들에게 박사학위를 제공하는 대학이 없다는 필요성에서 출발했습니

다. 박사과정을 밟기 위해서는 캘리포니아 남쪽의 풀러신학대학원이나 다른 학교들로 가야 했죠. 당시 노스웨스트 목회대학원의 신학 기반 위에 더 넓은 의미로의 사역 확장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역사회 개발 및 도시 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던 시애틀 지역 인사인 레이 바키 씨가 이 학교를 맡게 되었고, 때마침 에즈베리 신학대학원(Asbury Theological Seminary)의 총장으로 섬기다가 은퇴한 데이비드 맥케나(David McKenna) 박사가 시애틀로 이사하면서 총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목회자 리더십(pastoral leadership)에서 도시 선교, 즉 더 넓은 범위로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사역에 중점을 두게 되었죠. 그러면서 학교 이름도 '바키'로 바꾸었습니다.

김: 바키 가족이 혹시 학교를 소유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보통 한국에서는 학교나 어떤 것에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학교를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할 때도 있거든요.

Gwen: 바키 가족들은 학교와 관련하여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바키'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그들의 영향과 그들의 존재를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알리고 기념하기 위한 것이지요.

편: 레이 바키의 도움이 컸던 것 같은데, 레이 바키는 어떤 분입니까?

Gwen: 그는 도시의 지도자로 사역지나 기관에만 있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상당한 선견지명이 있었고, 도시문제와 세계적인 이슈를 다루는 데 놀라우리만치 명석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대학이 설립 초기부터 도시를 배움의 중요한 장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자주 언급했던 이유입니다. 우리는 도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기관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육체제와 정부기관, 비영리 NGO 및 NPO 등과 함께 어우러져 도시의 살림을 위해 완전히 통합되는 것입니다.

편: 도시 선교라, 좀 생소합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입니까?

Gwen: 실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도시에서 모든 기관들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마주하게 될 때, 놀라운 변화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대학은 전 세계 각지에서 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기독교적 관점의 도시 구호 및 개발을 배웁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 그들이 배우고 보고 느낀 것을 그대로 실행하죠. 일반 목회를 하기도 하구요(D.Min), 교회가 아닌 정부나 또는 영리나 비영리 NGO 등에서 일하기도 합니다(Doctor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D.T.L, 변혁적 리더십 과정). 또 어떤 학생들은 목회 리더십을 글로벌 도시로 확장시키기도 합니다(Master of Arts in Global Urban Leadership: M.A.G.U.L, 글로벌 도시 리더십 과정). 비영리 지도자를 위한 조직 관리 및 실질적인 프로그램은 사회적 기업 등으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기도 하고요(M.A.S.C.E.: Master of Arts in Social and Civic Enterprise 사회적 공공 기업학 석사), 비즈니스 및 기업가들도 함께하기도 합니다(M.B.A.). 이들은 포괄적 의미에서 또 다른 사역자입니다.



학생의 대부분은 이미 박사학위를 마치고 오거나, 다른 전공을 공부하던 학생들입니다. 더러는 기관이나 정부 등 다양하고 폭넓은 우리의 네트워크에 참여하고자 오기도 하고요. 이러한 네트워크는 우리 학교와 학생들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단순히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차원을 넘어 다른 나라의 도시까지 확장됩니다. 학생들은 실제로 현지에 가서 그곳에서 강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타국 신학대학의 총장이 우리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네트워크가 확장되기도 합니다.

김: 학생들 중 목회자의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Gwen: 시작할 때만 해도 거의 100%의 학생들이 목회자였습니다. 우리가 박사과정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도 그랬고요. 비록 그들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들은 학위(M.Div.)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영과정(M.B.A)도 있고, 박사과정에 더 이상 신학대학원 학위(M.Div.)를 요구하고 있

지도 않습니다. 석사나 그에 상응하는 학위 정도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범위가 꽤 다양해졌습니다. 또 지금 가장 큰 프로그램이 D.T.L.(Doctor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박사과정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꽤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목회자가 절대다수는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학교나 그런 훈련을 거친 자들, NGO 소속이 대부분입니다.

김: 혹시 학생들이 소집단을 구성해서 모임을 갖기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직업이나 지역에 따라 모이기도 하는지요?

Gwen: 학생들은 온라인을 통해 관심사와 직업에 따라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제 직책 중 하나가 바키 대학의 국제부 부총장(Vice Presid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입니다. 우리는 400명이 넘는 박사를 배출했고, 석사과정 학생들 또한 많지요. 현재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인 300여 명의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에서 미미하게나마 연결될 것이고 그들을 통해 더 확장될 겁니다. 여러 국적의 그들이 같은 수업에서 만나 함께 일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원을 계속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두 개의 위원회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대학의 법률·재무 문제를 담당하는 재정위원회(financial board)이고, 나머지는 자문위원회(advisory board)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역 이사회'(board for regions)라고 부르는데, 레이 바키와 졸업생들이 과거부터 축적한 노하우입니다. 그들은 이제 세계로 뻗어 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지에서 그들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기 원하기에 그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Don: 아시다시피 우리 학교는 매우 독특합니다. 그로 인해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었죠. 중국에도 13명의 졸업생들이 있고, 그들은 그곳에서 각자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우리의 영향력 아래에 두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계획하고 그를 이행할 뿐이죠.





Gwen: 우리는 그들이 잘하고 있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타 대학에서 가르치고 싶습니다.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공유하고 나눠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를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우리 대학에 와서 배우고 박사과정 프로그램을 밟아야 하겠죠. 대부분은 이미 박사과정을 밟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수업을 통해 패러다임의 전환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 옮기는 탈바꿈이죠. 그것이 우리가 연구 기반의 박사과정에 학위를 주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죠. 우리는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프로그램을 실험하여 배우고 또 성과를 얻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겠죠. 한 예로, MBA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하마에서 특별히 지원받아 함께하게 된 탁월한 간호사였죠. 바하마에서는 사건·사고 발생 시 생기는 부상을 전담하는 체계나 정부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정부로부터 이를 전담할 기관을 설립하도록 부탁받았습니다. 그는 기관을 설립하고 필요한 정책절차를 밟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준비했죠. 바로 그것이 그녀의 MBA 졸업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녀가 입학할 당시만 해도 그녀가 그런 것들을 하게 될 것이라곤 예상치 못했습

니다. 이처럼 우간다, 필리핀 등 현지에는 셀 수 없는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대학의 특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들이지요.

김: 도시 교회, 도시 선교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특히 레이 바키의 도시 선교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저서인 <도시만큼 큰 신학>(A Theology as Big as the City)은 신학교 선교학 수업에서 교재로 많이 쓰입니다.

Gwen: 레이 바키는 전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바키와 중국과 홍콩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한 신학교 도서관에서, 한 어린 학생이 그를 알아보고는 다가와 “혹시 <The Urban Christian: Effective Ministry in Today's Urban World>의 작가 아니세요?”라고 묻더군요. 바키는 성경을 보는 안목과 성경내러티브를 관찰하는 안목이 탁월합니다. 도시의 면면을 관찰하고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묻고 또 그렇게 하도록 도움으로 그들이 스스로 그것을 얻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매일 고기를 주기보다는 스스로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 주라고 자주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의존적이기보다는 그들이 자립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돕는 것이 바키의 도시 선교사역의 특징이었습니다.

Don: 상당히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를 통해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Gwen: 사회변혁을 위해서는, 약자에게도 다가가야겠지만 권력자와의 접촉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의롭지 못한 사회는 대부분 구조부터 바뀌어야 하니까요. 구조가 바뀌어야 약자들을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를 변혁할 수 있죠. 우리는 더 넓고도 전체적인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필리핀에서 온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갓 졸업한 변호사로 그는 필리핀의 인종에 따른 사회적 계급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필리핀에서 심각하고도 큰 문제였습니다. 필리핀 원주민 집단은 스페인과 미국의 식민지 지배, 그리고 이후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그들의 자유와 권리를 상당 부분 박탈당했습니다. 그 학생은 이것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죠. 그래서 법무팀을 조직하고 팀원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최대한 조사했어요. 그의 논문은 원주민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방법이었고 그는 마침내 해냈습니다.

김: 전통적인 목회와는 다른 방식의 사역인데 혹시 설립 초기에 전통적 성향의 목회자 그룹의 반대는 없었습니까?

Gwen: 모든 목사님들이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없었다고는 할 수 없죠. 물론, 그들이 사역하는 방식이 유일한 것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반면 젊은 사역자들은 열린 자세로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죠.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을 내다보는 리더도 있고요. 레이 바키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공부하기를 원했죠. 물론 이제 그는 은퇴를 해 최소한의 활동만을 하고 있고, 이제는 그에게 배웠던 학생들이 교수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 바키대학의 수업 과정이 독특하다고 들었습니다.

Gwen: 학교 자체의 캠퍼스가 있거나 기숙학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온 학생들이 생활비 외에도 추가경비 등 부담이 크다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학교 교실에서 이뤄지는 교육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구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야

만 했습니다. 그래서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일부에 온라인 강의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일정 부분 성공한 학생들이 공부를 위해 현재 있는 일 자리를 떠나기를 원치 않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해 주고 싶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많은 박사과정 지원자를 받을 수 있었죠. 관계형 온라인 강좌로 혼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다른 학생들과 대화도 나누고 질문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알고 소그룹을 만들어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교수들은 일종의 칠판 역할인 V-room에 필기하여 수업 중인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물론 실행 초기에 이 부분에 대해 심히 걱정을 했습니다. 관계라는 것이 인간적인 유대 관계를 맺고 신뢰를 쌓아야 생기고 그래야 바뀌는 건데, 온라인 교육은 서로에게 관심 갖기 정말 힘든 구조거든요. 두 번째 우려는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였습니다. 많은 조사 끝에 서로에 대한 익명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죠.

한 학생은 온라인 코스에서 관계가 형성될 거라곤 아무도 생각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의 동료들에게는 남아메리카, 캄보디아, 미얀마, 한국 등 세계 각지에 퍼져 있죠. 각각 다른 문화권에 속한 그들은 서로의 다른 생각을 교환하곤 합니다. 학생들은 온라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코스 자체를 즐깁니다. 온라인으로 일상생활을 공유하며 유대 관계를 맺기도 하고, 실제로 직접 여행가서 서로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박사과정에서는 서로가 어우러져 함께 작업하는 심화과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2주간 한 도시에서 모여 함께 작업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각기 다른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이 한 도시에서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하는 것이죠. 모든 박사과정 학생에게 최소 1번은 이러한 작업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할 수도 있고요. 항상 같은 지역에 가는 건 아니구요. 캘리포니아에서 지역발전을 관찰하며 1학기를 보낼 수도 있고, 과테말라에서 1학기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김: 그래서 교수님께서 그렇게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군요.

Gwen: 네, 또한 우리는 각처의 많은 교수 자원을 훈련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편: 한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요?

김: 다른 나라들은 거기 있는 기독교 비영리단체 NGO나 NPO 등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고신대학교,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등 신학교에서 진행합니다.

Don: 우리의 오랜 친구인 폴 스티븐스(Paul Stevens)가 그렇게 조언하더군요. 원래 이러한 방법으로 신학교에서 시작되었고요. 많은 신학교에서 해왔고 많은 이점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목회자의 권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이러한 운동을 하고 교회가 이 운동의 중심이 되는 것이 우선 되어야겠다고 싶었죠. 우리는 목회자와 성도가 교회 안에서 통합되어 일터가 신앙과 분리되지 않도록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자로 부름받았습니다.

Gwen: 한국에서는 우리의 친구이자 바키대학의 겸임교수(resource faculty)로 있는 이금주 박사(미국명: Jewel Hyun)가 강의를 맡고 계십니다. 이미 천안의 고신대학원에서 일의 신학을 두 차례에 걸쳐 집중 강의를 했고, 현재 김 교수님이 계시는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에서 두 차례의 집중 강좌를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계명대학교에서도 간호학과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일의 신학 프로그램을 열었던 것으로 압니다. 특히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과 우리 바키대학은 서로 협력관계(MOU)를 맺어서,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을 중심으로 한국에서 일의 신학이 정착되고 발전하는데 서로 돕기로 합의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에서는 재학생들을 배우러 온 외국 학생들에게 기독교 세계관과 일의 신학을 필수로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자



신의 전문 직업을 통해 고국에 돌아가서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또한 바키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마친 크리스천 오버만(Christian Overman)이라는 교육학자는 일의 신학을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는 연령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개발했습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을 한국에 접목시키는 과제를 연구 중에 있는데, 여기에 김 교수님도 참여하십니다. 앞으로 한국 사회와 교회에 필요한 일의 신학이 더욱 개발되어서 일터에서 제자도에 헌신하는 크리스천들이 늘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김: 두 분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